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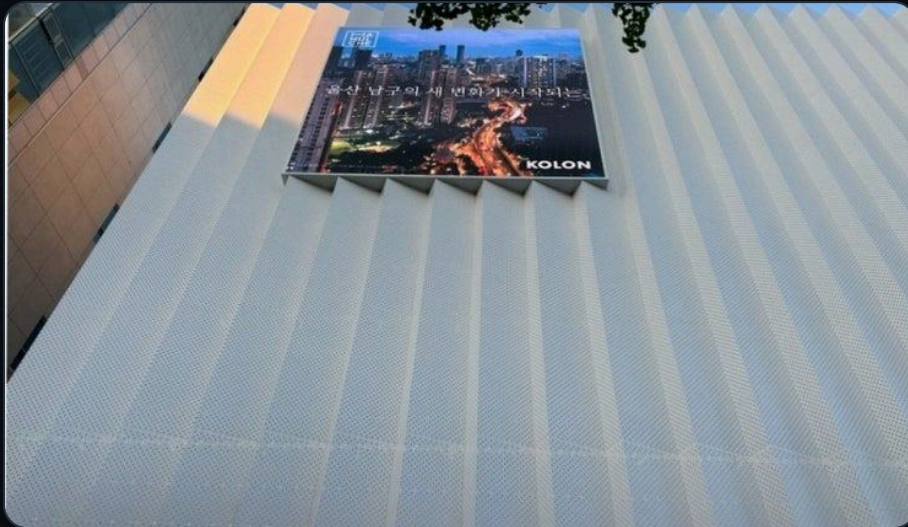
LED전광판

기술 가이드

2026-10-03 · (주)연우솔루션 작성 · 사진 9장

3기 지정 전, 매장 유리벽부터 재 본다

상가 1층, 전면 유리는 폭 5.2m에 높이 2.8m다. 밤 9시 반에 셔터를 절반쯤 내리면, 14㎡ 남짓한 그 면은 다음 날 아침까지 검은 유리로 남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3기 지정 이야기가 돌면서, 이 유리를 다시 보는 사장님이 늘었다.



검은 유리벽 앞에서 사장님이 먼저 꺼내는 세 가지 질문

- Q1 우리 가게 주소가 구역 안인가?
A1 그치요. 도로를 보면 단위로 대충한다. 공개 됐으면 일단 기준을 따릅니다.
- Q2 건물주 허락이 필요한가?
A2 외부 광고와 본건은 중첩은 동의서가 편합니다.
- Q3 지금 전기로 버티나?
A3 지금 최대 9~11kW 계약인데도 본건만 여유부터 봅니다.



원문 수록 이미지 ·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01 유리 안쪽이나 외벽이나, 모듈은 거기서 갈린다
- 02 밝기는 사양표가 아니라 시간표다
- 03 16:9 영상을 그대로 걸면, 미디어파사드는 평범한 광고판이 된다
- 04 견적서는 ㎡ 단가 한 줄이 아니라 일곱 줄이다

‘여기에 미디어파사드를 걸면 되나.’

질문은 짧다. 하지만 답을 내려면 주소와 전기, 밝기, 콘텐츠를 차례로 짚어야 한다.

본문 속 수치

2016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2016년 코엑스 일대가 1기로 지정됐다.

600~800W

투명 LED 모듈의 최대 소비전력은 ㎡당 600~800W 수준이다.

9~11kW

14㎡ 남짓한 유리면이면 최대 9~11kW, 평균으로는 그 3분의 1 안팎을 쓴다.

10kW

계약전력이 10kW 안팎인 상가에서는 냉방과 겹치는 여름 오후에 차단기가 먼저 반응한다.

자유표시구역은 무엇이든 거는 곳이 아니라, 먼저 확인하는 곳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2016년 코엑스 일대가 1기로 지정됐다. 2023년에는 광화문광장과 명동, 해운대 구남로가 2기로 지정됐다.

적용 디스플레이

옥외 LED 전광판 · 실내 LED 전광판 · 미디어파사드 · 투명 LED

구성 요소

CMS·스케줄 송출 · 원격 관제·제어 · 콘텐츠 제작 · 맞춤 프로그램 개발 · 3D 모델링·설계

진행 단계

현장 실측 → 구성 제안·설계 → 제작·발주 → 설치·시공 → 시운전·인수 교육 → 운영·유지보수

관련 솔루션

LED 전광판 · 미디어파사드

LED 전광판 신설 · 교체

Windows 10 지원 종료 · 노후 플레이어 전환

찾은 현장 출동

이 가이드로 상담

☎ 010-2700-2648 · ✉ osskoreaing@gmail.com

원문 · 사진 전체: screenmaru.co.kr/blog/224430123111.html



연우솔루션
YEONWOO SOLUTION

기술 가이드 123111